

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문

새만금 동서·남북도로 준공, 신항만 조성, 스마트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우리 김제시와 전북도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황해권 중심의 물류 중심도시로 전북이 도약하는 부푼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.

그러나,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,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.

이에, 우리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더 이상 군산시 도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하나.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희망이며 3개 시·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 결정되어야 한다.

하나.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.

하나.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
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.

하나. 김제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
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.

2023년 5월 31일

김제시의회 의원 일동